

『미란다 복제하기』

캐럴 마타스 글 | 김다봄 옮김

주 제 어: #윤리의식 #생명존중 #성장 #인권 #인간복제

분 류: 청소년소설

작 성: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성지현(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이성균(경기대명고등학교),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도서 소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과 부모님에 대한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운명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 미란다는 어느 날 자신의 심각한 병을 알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만들어진 복제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공부, 외모, 인성, 발레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믿었던 자기 자신조차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란다는 자신에 대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아 온 부모님의 사랑, 자신을 만든 의사 선생님에 대해 불신과 분노를 느끼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미란다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제2, 제3의 복제인간까지 진정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뛰어다닙니다. 또한 인간을 복제해도 된다는 가치관을 가진 의사와 부모님의 선택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운명과 현실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행동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위치를 파악하고 진지하게 자아의 본질을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선택과 행동을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 아빠는 늘 옳은 이유로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 엄마가 내게 말했다.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어떤 결과가 닥칠지는 알 수 없으니까.” (387쪽)

학습 목표

-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인물 간의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상상과 추론으로 작품을 내면화하며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사회 현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쟁점을 형성하여 토론할 수 있다.
-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고 조건에 따라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그림 복제하기	1차시
독서 중	[1장~11장] 추론과 평가하며 읽기	2차시
	[12장~21장] 상상과 내면화를 바탕으로 읽기	3차시
	[22장~31장] 이야기의 핵심 의미 파악 -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4차시
	[32장~44장] 인물의 행동에 관한 평가	5차시
독서 후	가치수직선으로 자신의 입장 드러내기	6차시
	반려동물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 - 쟁점 찾기	7~8차시
	'나'를 찾는 질문과 답	9차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너'	10차시

■ 다음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봅시다.

국어사전

N 실크스크린 판화



공판을 이용하는 판화. 나무나 금속의 테에 붙인 비단·나일론·테트론 등의 가는 구멍을 통하여 스퀴지로 잉크나 물감을 밀어 인쇄한다. 종이·천·플라스틱·목재·금속판·돌·도자기·유리 등 어떤 종류의 물건에도 인쇄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1960년대 이후 많은 작가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팝 아트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여러 가지 판화 기법 중 제작 과정이 비교적 간편하고 일단 판이 완성되면 단시간 내에 수십 장을 찍어 낼 수 있어 상업적인 포스터 등에 많이 이용된다. 자기가 원하는 상(像)대로 스텐실을 만든 후 그 위에 실크를 올려놓고 실크의 망사로 잉크가 새어나가도록 하면 구멍이 난 스텐실 부분에만 잉크가 묻어나 찍혀 나오는 원리다. 판의 천은 실크 이외에 질기고 값이 싼 나일론을 많이 사용한다.



1. 다음 그림은 동일한 판으로 만든 실크스크린 작품입니다. 그림을 감상해 봅시다.



(가)



(나)

2. 다음에 제시한 질문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질문 1] 위의 그림은 실크스크린 인쇄 기법을 활용해 찍어 낸 작품입니다. 하나의 판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 2,400장의 그림을 대량으로 찍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도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위의 그림 중 (가)는 82번째, (나)는 294번째로 찍어 낸 작품입니다. 둘 중에 어떤 작품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질문 3] 첫 번째로 찍어 낸 작품과 마지막으로 찍어 낸 작품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3. <보기>를 참고하여 질문에 답해 봅시다.

< 보기 >

위 작품은 팝 아트의 거장인 앤디 워홀(Andy Warhol)의 '꽃(Flowers)'입니다. 작가가 죽은 뒤에 2,400장을 한정판으로 찍어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앤디 워홀의 친필 서명이 아닌, 인쇄 서명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장당 우리 돈으로 약 3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 누군가가 동일한 판으로 2,401번째의 그림을 찍어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여기에는 앤디 워홀의 인쇄 서명이 없습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평가 금액과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평가 금액	₩	원
이유		

■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을 해 봅시다.

나는 ㉠사진을 넘겼다. 런던 탑과 대영 박물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그때 대충 끼워져 있던 사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사진을 집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은…… 이상하네.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이게 무슨 사진이지? 사진 속 커다란 성 앞에 있는 건 분명 나다. 그렇지만 런던 여행 때 일 리가 없다. 나는 열 살 정도로 보였다. 언제 찍은 거지? 이상한 일이다. 성에 갔던 기억은 없는데, 저 옷은 뭐람. 웬. 내가 저런 옷을 입었다고? 펠빵바지를? 내가 저 나이대였을 때도 펠빵은 없었는데.

- 『미란다 복제하기』 45~46쪽 中

1. ㉠과 ㉡의 차이점을 책 속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선생님께 ㉠과 ㉡에서 단순하게 드러나는 사실의 차이와 더불어 의미의 차이 등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의미에 대해 책 속에서 직접 표현된 부분을 찾는 것은 주어진 자료 속에서 근거를 찾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2. 미란다가 ㉡ 속의 '나'에 대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 각 등장인물들은 ㉡의 '나'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친구들과 논의하여 작성해 봅시다.

엄마, 아빠	는 ㉡ 속의 '나'를	
미란다		
로나 아줌마		
엠마		
멀린 박사		

■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을 해 봅시다.

“그 애는 네 복사본이야. 네가 태어날 때 채취한 DNA로 만들었지. 보험 같은 거란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가 교통사고나 끔찍한 병으로 죽어. 이식받을 장기나 골수가 없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러니까 네 아빠와 나는 너를 그런 운명에 빠뜨리지 않기로 했어. 너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그래서 너를 복제한 거야. 그 애는 여기서 만들어졌어. 너한테 필요할지도 모르는 장기를 넘겨주는 게 그 애가 만들어진 유일한 목적이야.”

갑자기 무릎이 꺾이고 몸이 덜덜 떨려 까닥하면 넘어질 참이었다. 멀린 박사가 나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간 같은 거 말이죠.”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나 다름없었다.

“그래.” 엄마가 호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간 같은 거 말이야.”

“그럼 절 구하려고 그 애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 미란다, 그 애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복사본이라고. 실험실에서 자라났어.”

“하지만 말을 하잖아요. 감정도 느끼고요. 무서워한다고요!”

“말도 안 돼. 그 애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 왔어.”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커다란 충격으로 머릿속이 새하얗다. 복사본이라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때 단어 하나가 떠올랐고 나는 소리 내어 그 말을 뱉었다. “복제인간.” 그리고 웃기 시작했다. “농담이죠, 그렇죠? 그냥 장난치는 거잖아요.” 모두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웃음을 멈췄다.

“당신들은 내 부모도 아니야.” 나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끔찍한 괴물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사실일 리 없어.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깨어나고 싶어. 깨어나고 싶다고!” 나는 우는 동시에 웃으며 비명을 질러 댔다. 미쳐 가는 게 분명했다.

- 『미란다 복제하기』 121~123쪽 中

1.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나열해 봅시다.

2. 복제인간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두 입장 중 한 쪽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복제인간은 사람(이다 / 아니다). 왜냐하면

3. 현재의 '나'는 사람의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 관찰하여 작성해 봅시다.

현재의 '나'는 사람(이다 / 아니다). 왜냐하면

4. 미란다의 부모님은 미란다를 위해 복제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란다는 그런 부모님에게 괴물이라고 말하며 화를 냅니다. 과연 부모는 자녀의 복제인간을 만들 권리가 있을까요? 미란다의 부모님을 옹호 혹은 비판하는 입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의 복제인간을 만들 권리가 (있다 / 없다). 왜냐하면

■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을 해 봅시다

“미란다, 무슨 일인데. 부모님이 뭐라셔? 사진 속 아이는 누구래?”

나는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두 분의 첫아이. 제시카.”

“제시카는 어떻게 됐는데?”

“죽었어. 뇌종양으로.”

“너무 슬프다. 왜 여태 너한테 아무 말 안 한 거야?”

“내가 제시카니까. 제시카의 DNA로 나를 만들었대.”

“뭐라고?”

“말 그대로야.” 나는 일어나 앉아 엠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엄마는 나를 임신한 적이 없어. 대리모가 나를 임신했어. 대리모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겠지. 나는 복제인간이야.” 엠마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끔찍한 괴물이야.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 내가 똑똑한 것도 다 그래서야. 항상 모든 걸 분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나는 똑똑하게 만들어진 거야. 운동도 잘하도록 만들어진 거고.”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가, 엠마. 가서 진짜 친구를 만들어.”

㉠ “너는 너야.” 엠마가 말했다.

“아니, 아니야. 경찰이라도 가서 전부 털어봐. 우리 가족을 다 가둬 버리게.”

“안 돼. 네가 갇히는 건 싫어. 난 네가 다 나아서 학교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엠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는대도,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설계된 DNA 덩어리일 뿐이라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모두가 어떤 특징을 물려받잖아. 신체적 능력이나 지능, 뭐 그런 거. 지미를 봐.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게 꼭 자기 아빠 같잖아, 안 그래? 만약 지미가 아빠와 떨어져 자랐다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방법을 배웠을 거야. 내 말은, 설령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고 각자 정해진 방향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우린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바로 그런 존재인지도 몰라.” 엠마가 항변했다.

- 『미란다 복제하기』 147~148쪽 중

1. 자신이 복제인간임을 고백하는 미란다 앞에서 엠마는 위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나의 절친이 갑작스럽게 복제인간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또 친구에게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요? ㉠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대답해 봅시다.

나의 절친이 복제인간임을 갑작스럽게 고백한다면 나는

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친구에게

라고 대답할 것이다.

2. ㉠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찾아 설명해 봅시다.(특히 자신의 경험을 예로 제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3. 다음 두 주장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주장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작성해 봅시다.

주장 ① 나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온전하게 자유롭다.

주장 ② 나는 DNA에 따라 특정한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내가 선택한 주장	그 이유

■ 글을 읽고, 가족 안에서 최종 권한은 부모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가족은 모두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미란다 엄마의 말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친구에게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과 친구가 이해한 해석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봅시다.

“똑똑히 알아 뒤.” 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언니라는 걸 말아야. 언니 말을 들어야지. 뭔가 하기 전에는 내 허락을 받아야 해.”

“미란다!”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왜요, 어머니. 도대체 통제가 안 될 지경이라고요.” 내가 불뎨소리를 했다. “제가 대장이란 걸 아리엘도 알아야죠.”

“넌 대장이 아니야, 미란다. 아리엘, 네가 따라야 할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란다.”

“미란다 언니가 아니라고요?” 아리엘이 물었다.

나는 어머니를 뺀히 바라보았다.

“흠…….” 어머니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건 좀 달라. 미란다 언니는 많은 조언을 해 줄 거야. 그러니 언니 말을 듣는 게 너에게도 좋겠지.”

“참 감사하네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최종 권한은 부모한테 있어.”

어머니는 아리엘뿐 아니라 나도 엄두에 두고 말한 게 틀림없다. 내가 직접 최선이 뭔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어머니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건지도 모른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리엘이 심각하게 대답하더니 말을 멈췄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보였다. “그렇다면, 제 말을 들을 사람은 있긴 한가요?”

나는 킬킬거렸다. “아니! 왜냐면 네가 제일 어리니까.”

“미란다는 그냥 널 놀리는 거야, 아리엘.” 어머니가 말했다. “당연히 우리도 네 말을 들을 거야. 그게 좋은 부모의 역할이거든.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해야 해.”

방금 말은 못 들은 척하기로 했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자식한테 진실을 숨기는 것도 존중하는 방법인지는 몰랐는데,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미란다 복제하기』 186~187쪽 中

1) 내가 이해한 미란다 엄마의 말

2) 친구가 이해한 미란다 엄마의 말

3) 가족 구성원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22장~24장을 읽고 활동해 봅시다.

1. 미란다는 변해 버린 아리엘이 가짜인지 모른다는 의문을 품습니다. 소설 내용을 이용하여 아리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데 가장 유용한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 보기 〉

- * 익힌 기술 - 수영하는 법 등 (22장, 233쪽)
- * 말투 (22장, 233쪽)
- * 성격 (22장, 234쪽)
- * 입맛 - 레몬주스 (23장, 247쪽)
- * 이름 (23장, 248쪽)
- * 신체적 특징 - 수술 흉터 (24장, 256쪽)
- * 휴대폰 메시지 (24장, 258쪽)

가장 유용한 것	
그 이유	

선생님께 서사 진행 과정에서 미란다가 생각한 아리엘을 증명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요소들이 어떤 효과가 있고, 쓸모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모두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모두 중요하지 않은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꼭 하나만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신이 진짜인지 의심받는 상황일 때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요소는 무엇인지 하나만 찾아 설명해 봅시다.

가장 확실한 것	
그 이유	

■ 25장~31장을 읽고 활동해 봅시다.

(가)

“내 소박한 계획을 알려 주지. 나는 아기를 만들어 낼 거야. 완벽한 아기를. 아기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너도 알겠지. 나는 그에 걸맞은 공급을 책임질 거야.”

“아주 떼돈을 버시겠네요.” 엠마가 빈정대듯 말했다.

“돈이 많이 드는 연구야.” 박사가 말했다. “나는 연구비만 벌면 돼. 이 프로젝트는 최초이자 최전선의 과학 연구로써 의미가 있어. 인도주의적인 거지. 하지만 아직 감정과 성격을 통제하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해.”

“아무 문제 없는 아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바로 그거야.”

마침내 아리엘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이 저도 보내 주는 게 맞아요.”

박사가 아리엘을 향해 환히 웃었다. “훌륭한 논리야, 텐.”

“아리엘이요.” 아리엘이 지적했다.

“아리엘. 하지만 넌 내가 지금까지 만든 실험체 중에 신체적으로 가장 완벽해. 넌 새로운 복제인간의 표본이 될 거야.”
- 『미란다 복제하기』 303~304쪽 中

(나)

언제나 선택지는 있다—그게 뭐든 간에. 갑자기 간 이식을 받고 클리닉에 처박혀 있을 때 읽었던 글이 떠올랐다. 당시 나는 유전학과 자유 의지에 관한 글을 닥치는 대로 찾아 읽었다. 어떤 연구를 다룬 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선택의 50퍼센트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의 영향은 10퍼센트다. 그럼 남은 40퍼센트는? 우리의 자유 의지가 결정한다. 나 자신이 그저 멀린 박사가 만들어 낸 꼭두각시처럼 느껴지던 당시에는 별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글썄, 지금은 믿는 수밖에.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우리가 박사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 『미란다 복제하기』 308~309쪽 中

1. 멀린 박사가 말하는 ‘아무 문제 없는 아기’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2.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에서 멀린 박사가 만들고자 하는 ‘완벽한’ 복제인간의 문제를 비판해 봅시다.

■ 이브의 일탈 행위를 찾아보며 활동해 봅시다.

1. 이브가 미란다를 가장하여 저지르는 일탈 행위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33장	
34장	
39장	
40장	

2. 40장을 읽고, 미란다에 대한 이브의 행위를 <보기> 관점에서 평가하는 의견을 친구들과 나눠 봅시다.

< 보기 >

- * 한 인간의 생존 욕구
- * 치료를 대가로 한 멀린 박사의 협박
- *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

■ 복제인간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며 활동해 봅시다.

< 보기 >

복제인간 찬성 (가)	복제인간 반대 (나)
① 불임 문제 해결 가능 ② 염색체 이상 등 선천성 결함 예방 ③ 장기 이식 활성화 ④ 우수한 능력을 가진 개체 생산 ⑤ 복제인간도 서로 다른 선택과 경험, 환경으로 독자적인 삶 가능	① 기술적 위험성으로 기형 조기 사망 등 부작용 발생, 질병에도 취약 ② 전통적 가치의 가족 공동체 파괴 ③ 유전적 동일성으로 인한 진화 방해 ④ 자연의 질서에 어긋남 ⑤ 생명을 수단화하여 인간의 존엄성 훼손, 인간의 유용한 도구 역할로 전락 ⑥ 복제인간의 정체성 혼란

1. 복제인간이 무엇인지 자료를 찾아 정의해 봅시다.

2. 복제인간에 대한 찬반 의견인 <보기>의 내용을 소설에서 찾아 쟁점을 정리해 봅시다.

의견 번호	소설 부분	쟁점 정리
찬성-①, ②	13장 142~145쪽	아이를 잃은 부모님은 다시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 DNA를 조정한 복제인간을 만드는데, 어머니의 나이가 많고 합병증 위험이 있어 대리모에게서 미란다를 얻음.

선생님께 이 활동은 소설에 드러나는 복제인간에 대한 논쟁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제인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자주 언급되는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소설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연결해 보는 활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 활동인 토론에서 행할 논리적 사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모든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이유를 찾아 연결해도 됩니다.

■ (가)~(바)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결정하고, 가치수직선에 화살표로 1에서부터 동의하는 숫자까지 표시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함께 적어 봅시다.

(가)

“귀가 시간이 지나서까지 밖에서 노는 게 뭐가 재밌어? 부모님이 걱정만 하실 텐데.”

“그래서?”

“그래서라니, 상관없다 이거야?”

(중략)

“전혀! 부모님이잖아. 부모라면 원래 걱정하는 거야. 그게 그분들의 임무라고. 내 임무는 쉽 대답게 구는 거야. 늦게 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재미있게 노는 거. 밥 오빠가 아트스미스 등산로까지 태워 줄 거야. 야간 하이킹이라고. 엄청 재미있을 거야.” (8쪽)

○ 부모님이 걱정하더라도 쉽 대답게 밤늦게까지 놀아도 된다는 입장

반대 찬성



[이유]

(나)

하지만 나는 부모님이 저지른 일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 사실 전처럼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 ‘우리 아빠’라고는 더더욱. ‘엄마’도 어머니가 되었다. 할 수만 있다면 두 분을 마틴 씨와 마틴 부인이라고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 두 분은 내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173쪽)

○ 부모님의 행동에 실망한 미란다가 부모님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는 입장

반대 찬성



[이유]

(다)

박사는 우리에게 몸을 돌렸다. “그래서, 결정은 내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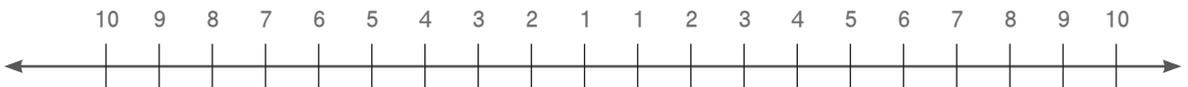
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박사님은 나빠요. 정말 나빠요. 하지만 여기서 나가려면 박사님이 우리를 내보내 주는 수밖에 없겠죠. 박사님이 엠마를 해치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아리엘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아리엘을 남겨 두기로 했어요. 아리엘이 그렇게 하겠대요. 우리가 다치는 건 싫다고요.”

“물론 그렇겠지.” 박사가 말했다. “그렇고말고, 아리엘은 네게 봉사하기 위해 길러졌으니까. 네게 자기 삶을 바치도록 말이야. 하지만 당장 죽을 필요는 없지. 아주 귀중한 건본이 될 테니까.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야.”

(315~316쪽)

○ 엠마를 구하기 위해 아리엘을 박사 옆에 남겨 두기로 결심한 미란다의 입장

반대 찬성



[이유]

(라)

“부모님은 항상 언니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시잖아.” 아리엘이 부모님 편을 들었다.

“두 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겠지.” 내가 말했다. “생각을 해 봐. 부모님의 돈과 지원이 없었다면 멀린 박사는 우리 중 누구도 만들지 못했을 거야. 그럼 이제 와서 우리를 제거할 필요도 없겠지. 하지만 두 분이 어떻게 했지? 정말 이기적인 것이었어. 제시카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았어야 해. 그건 제시카와 제시카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었어. 두 분 자신을 위해서지. 두 분이 미워!” 내가 불쑥 외쳤다. (398쪽)

○ 제시카의 복제인간을 만든 것은 부모님의 이기적인 결정이었다는 미란다의 입장

반대 찬성



[이유]

(마)

“어차피 내가 뭐래도 안 믿을 거잖아. 하지만 난 이브야. 멀린 박사님이 선택권을 줬어. 언니를 심각한 곤란에 빠뜨리거나 없애 버리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날 치료해 주겠다고. 처음엔 거절했지. 하지만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 점점 더 나빠졌지. 그래서 알겠다고 한 거야. 박사님이 실험 중인 약을 썼거든. 다 나올 수 있대.” (420쪽)

○ 자신이 치료받기 위해 미란다를 곤란에 빠뜨렸다는 이브의 입장

반대 찬성



[이유]

(바)

멀린 박사는 천재로 칭송받을 테니까. 악독하고 끔찍한, 자기밖에 모르는 진짜 모습은 가려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겠지. 살인자. 박사는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사고팔기 위한 재산으로 여겼다. 충분한 돈과 지원을 손에 넣는다면 박사가 또 얼마나 많은 우리를 만들어 낼까? 하지만 박사의 정체를 밝힌다면 나 자신뿐 아니라 아리엘과 부모님에 관한 진실도 만천하에 드러날 터였다. (371쪽)

○ 인간 복제를 한 멀린 박사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미란다의 입장

반대 찬성



[이유]

선생님께 이 활동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결정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연습 과정으로 활용합니다. 나아가 교실 한쪽에 학생 수만큼 의자를 놓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대-중립-찬성’의 표시를 해 둡니다. 하나의 질문에 학생들이 한 명씩 자신의 입장과 이유를 말하고 의자에 가서 앉게 합니다. 학생들이 의자에 앉기 위해 입장과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은 어떤 가치관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학생이 자리에 앉으면 선생님은 전체 의견을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 다음 반려동물 복제에 관한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1)~(4)단계 활동을 해 봅시다.

14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올초 유튜브 채널에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A씨의 반려견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1년 만이다. A씨는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자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이전 키우던 자신의 반려견을 두 마리로 복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영상에서 이전 죽은 반려견과 비슷하게 생긴 복제견 두 마리를 소개하면서 “펫로스 집에 있는 것조차 괴로워 해외로 많이 다녔다”며 “(유전자 복제를) 의뢰했던 티코가 두 마리로 태어났다. 현재 제게로 와 무력무력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펫로스 증후군은 자신이 키우는 애원동물을 떠나보내 상실감을 계기로 일어나는 각종 질환 및 심신 증세를 뜻한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반려견을 잃은 상실감과 우울감을 이해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복제견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동물 복제 성공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려동물 복제 업체에 따르면 반려견 복제는 대부분 ‘체세포 핵 치환’ 방식으로 진행한다. ‘체세포 핵 치환’은 난자의 핵을 제거한 후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 복제하는 기술이다. 복제견에 빗대면 이렇다. 암컷의 개로부터 채취한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의 핵을 이식한 뒤에 이를 대리견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일반적인 임신·출산 과정과 같다. 복제 과정에서 난자를 제공하는 ‘도너(donor)견’과 대리모견이 각각 한 마리씩 필요한데, 한 번에 수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상의 강아지가 필요하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크리스천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홍순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아지를 잃은 그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동물 복제를 한다는 것은 생명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정자은행과 난자 매매, 대리모 등 여러 윤리적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못할뿐더러 뭐든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 복제 과정에서 생기는 생명경시 풍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일보(2024.2.14.)’ 기사

(1)단계 [개인 활동] 자신의 반려견을 두 마리로 복제했다는 A씨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결정하고, 가치수직선에 화살표로 1에서부터 동의하는 숫자까지 표시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다양한 자료를 찾아 근거로 제시해 봅시다.

반대 찬성



[이유]

[근거]

자료 출처:

(2)단계 [발표 및 모둠 구성] 자신의 입장을 한 명씩 발표하고, 제시한 이유가 같거나 유사한 학생 4~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합니다.

(3)단계 [모둠 활동] '반려동물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모둠의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결정하고 이유와 근거, 쟁점을 제시해 봅시다.

논제	반려동물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
입장	찬성, 반대
이유	
근거	근거 1) 근거 2) 근거 3)
쟁점	

(4)단계 [전체 활동] 모둠 의견을 발표하고, 다음 활동지를 작성해 봅시다.

	자신의 모둠과 입장이 같은 모둠	자신의 모둠과 입장이 다른 모둠
쟁점 1		
쟁점 2		
쟁점 3		
쟁점 4		

선생님께 이 활동은 논제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밝히고, 모둠 활동을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쟁점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입장이 같은 다른 사람의 의견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견고히 하고, 반대 입장도 생각해 보는 과정 속에서 쟁점을 형성하는 토론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의 쟁점 예시로 윤리적 문제, 복제동물의 복지, 법률적 문제, 비용, 건강의 문제 등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 다음을 읽고, 표를 완성해 봅시다.

한 번쯤 여러분이 사용하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잊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다양한 인증을 거치게 되죠.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보안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 회원 가입할 때 여러 질문 중 하나를 고르고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작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질문을 선택하고 답을 입력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질문도 올바르게 고르고, 답도 일치하게 입력한다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즉 이런 과정을 통해 계정의 주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보안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어릴 적 별명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우리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난 장소는?

가장 싫어하는 배우는?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내가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첫사랑의 이름은?

첫 키스를 한 장소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의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누군가와 공유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만의 질문과 답을 만들어 봅시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복제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드러내어 찾아낼 수 있어야 하니까요. 결국 나는 복제인간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를 찾기 위한, '나'만의 특색을 잘 드러내는 질문과 답을 만들어 볼까요?

질문		답
1		
2		
3		
4		
5		
6		
7		

■ 다음을 읽고, 미란다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만남의 철학’으로 유명한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유대계 종교철학자입니다. 그의 대표 저서인 『나와 너』에서는 만남을 ‘나와 너’ 또는 ‘나와 그것’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때 ‘너’는 ‘나’와 동등한 주체의 자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그것’은 ‘나’의 객체로서 자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대상화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파손되거나 잃게 되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자, 세상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너’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도 ‘너’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생님께 반드시 소설의 주인공인 미란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독자에 따라 아리엘 또는 이브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편지를 받는 대상을 바꾸어도 좋습니다.